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21호 현대불교  
2009년 3월 4일(음력 2월 8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 여러분 마음의 철벽을 좀 더 뚫어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내가 잠자코 있는 동안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떤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요. 그래서 심봉이라는 것은 그대로, 누진(漏盡)이 레이더망이런 레이더망을 발진 심봉은 그 오싹통과 레이더망과 같이 전부 굴러도 이거는 움푹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 이시고) 하늘을 받쳐, 천지를 받친 바로 평발로써 받친 뭐라고 그럴까, 불기둥이라고 그럴까? 불은 하나지 둘이 아니니까. 물도 하나듯이 말이예요. 물은 흘러가는 것, 흘러 도는 걸 말하고 불은 움푹 거리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는 들고 돌아 불기둥은 하늘을 받치고 움푹도 안 한다. 변화가 없고 그대로 밝아 있다. 그대로 넉넉하고, 그러니 거기에 붙어서 돌아가도, 움푹을 안 해도 항상 이렇게 돌아요. 우리 마음이 넉넉하면 심봉이 돌아가는 것이 녹이 안 슬고 착착 돌아갑니다. 기름이 주어진니까, 넉넉한 마음은 기름을 주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심봉에 기름을 주는 거와 같아요. 그리고 넉넉지 못한 사람, 소견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은 이게 자꾸 돌리질 못하기 때문에 녹이 슬죠. 그리고 뻥뻥해, 잘 돌아가질 않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기계를 잘 아시죠? 만약에 차를 끌고 다니는 데도 바퀴가 영 굴러가지 않아서 그냥 두면 그 중심인 심봉이 잘 안 굴러가게 되죠. 양면으로 딱! 쪼여놓고선 이게 그냥 돌아가도 이 중심 심봉은 툭 움푹거리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들만 돌아가지요. 바깥에 붙어있는 그 다섯 가지의 수레바퀴가 즉, 불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불바퀴라고 해도 좋고 불바퀴라고 해도 좋고 보통 그런 수레바퀴라고 해도 좋죠. 그렇게 돌아가는 이 자체, 바로 그것을 바깥에 서서 돌릴 수만 있다면 말이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돌릴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가 (기름을 짚어 보이시고) 입력을 시켜라 그런 겁니다. '거기가 뇌라.' 그러니까 또 놓는 걸 몰라서 도대체 어떻게 뇌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네? 나중에 써먹으려고 입력을 변호대로 시켜놓고, 또 모두 입력을 시켜놨어만 그놈의 게 전부 일사천리로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자동적으로요.

그런데 그 기계가 그렇게 비싸다고 합디다. 허허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비싼 거예요. 그보다 더 비싼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이고 여러분입니다. 남들은 어떤

지 몰라도 자기 가정 속에서는 대들보예요. 그리고 자기 2세고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니까, 그 태두리가. 하다못해 제비 새끼들도 태두리가 있고 동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야 되겠으며 또 집 속에 식구들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거 이겁니다. 모두가 소중한 거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입력을 들어오는 대로 용도대로 잘된 건 감사하게 입력을 해놓고 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한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해봐!' 하고 거기다 입력을 해놓으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당당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라는 거지 항상 남한테 빌어서 먹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예요.

내가 조금 답답할 때는요, 음성이 커지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작게 하려 해도요, 답답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건 왜냐? 내가 말을 해서 여러분한테 입력만 된다면 그대로 어딘가 언젠가는 그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음파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음파가 되돌아오는 수가 많거든요.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목소리가 커져요. 허허허 참! 그러곤 답답한 겁니다. 사람이 공을 던졌으면 탁 받아서 되던져야 또 탁 받을 텐데, 공을 던져도 그냥 그냥 어디 가서 꼭 박히고 꼭 박히고 이렇다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마음이 돌입니까, 셋이나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 너무도 천차만별로 돌아가면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는 거며 공했다는 거며, 움푹거리라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 '공했다'라고 예전에 부처님들이 말씀 안 하하셨습니까? 그러니 없다는 사람도 있고, 비었다는 사람도 있고, 공했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뜻에 속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드려도 참...



그림 · 최주현

그러면 그 다섯 가지가 붙어 돌아가는데 레이더망이 제일 위에 붙죠. 누구든지 주장자를 가지면 거기가 용머리를 갖다가 띄워 붙어서 주장자를 만들죠?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주장자 하나로 인해서, 이 주장자를 깊은 물로 비유한다면 용이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춤을 추더라 하는 거요. 그러니 이 레이더망이 바깥에서 오는 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부 보고를 해 들으면 인의 컴퓨터에 입력이 왜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야만 대뇌로 해서 저 컴퓨터에 입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게 입력을 하셔야 이겁니다. 왜냐? 꿈을 꾸고도 이것은 '아이구! 꿈이 언짢아. 언짢으니까 이거 무슨 말이 또 날 거야. 이거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아이, 요렇게 생각을 하니 고개 그렇게 입력이 왜가지고 좋게 안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웃으면서 입력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무너진대도 '아이구, 네가 있다면 하늘이 무너진들 어떻게 땅이 무너진들 어떡하.' 하고, 나 이 자체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놔버려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지금 금방 죽는대도 생사를 다 놔버려요.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죠. 그런데 중생들은 생사에 그달리거든. 좋아하고, 죽고 사는 거 아주 그냥 그거에 얽매요. 그래서 마구나나 의도들

않고 죽게 하는 것도 너무한 겁니다. 그러면 입력이 돼요. 여러분이 소신껏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인데도 아, 이런 그냥 아주 절박이야, 절박! 그러곤 나한테 와서 "집을 사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낱쌀을 어떡하면 좋고?" 아, 이라고 물을 때는요. '아! 내가 이일까지 이력하고 있었던 본의가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나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단 말입니다. 나를 좀 털 울리려면 여러분이 좀더 그 철벽을 뚫으세요. 좀!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입력하는 것이라는 걸 지금 얘기해드렸습니다. 오싹통이 무슨 이력하고, 지난번에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 안 되겠어요. 그대로 그냥 그냥 얘기 해드려야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자력이나 전력이나 통신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무한량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레이저, 그 광력에 대한 그것을 안에서 받아서 레이저 치료를 하고 이력다는 것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이 도리를 모르고는 그 자리를 찾아내기도 어렵거니와 속에 있는 것은 속에서 그것을 해야요. 입력을 해서 이놈들을 시켜서 그냥 치료를 해야 되는 거요. 안에도 지수화 풍이 돼있어서 안에도 광력이 있고 전력이 있고 자력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도 있고. 크고 작은 것도 없어요.

마음은 벽이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았어도 천

은 소견을 좋아하지만 보살은 소견에 흔들리질 않아요. 또 죽고 사는 것도 '내가 이거 죽지 말아야지!' 하면 벌써 버려. 그냥 죽는 것도 좋아하고, 죽어야지, 죽지 말아야지 하는 거를 둘 다 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오? 그러니까 보살은 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양면을 다 버리지 않는 거요. 놔버리니까.

여기에서 또 인과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까. 고걸 어떻게 해야 더 자세히 얘기해드리죠? 그것은 입력하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내가 이

리를 다녀오라고 해도 다녀올 수 있어요. 아니, 저만 혹성에 갔다 오려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예요. 천체를 다 보고 오라고 그래도 보고 올 수 있어요. 그런 까닭에 안에서도 레이저의 도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는 안에서 치료를 하고 바깥에서 할 것은 바깥에서 치료하고 그러는 거요. 그리고 정신분열은 바로 그 지배인이 끌고 가게끔, 주인공이 끌고 가게끔 자꾸 입력을 넣어주는 거요. 제 컴퓨터에 입력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날더러 어떤 분은, 경을 달달 외우신 분들은 부처님의 경 얘기는 안 하고, 똑같이 안 하고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죠.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이렇다고. 그러나 본래 체계 없는 게 진리기 때문에 또 질서정연하게 체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변천해 돌아가니까 우리는 마음의 인등을 켜고 앞장서야지, 그러지 않으면 늦어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늦는다는 거를, 버스 지나간 뒤에 버스 타려고 아무리 기다리고 섰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툭 누고 싶으면 툭 누고 목마르면 물 먹어야 이겁니다. 그냥 오는 대로 거기 입력만 해 넣어라 이거예요. 그러고는 '관(觀)하라!' 이런 거는 지켜봐라 이거거든요. 지켜봐라! 지켜보면 그것이 바깥으로, 입력됐던 거니까 바깥으로 탁, 팩스에서 나오듯이 탁 탁 나오거든요. 그런 게 실험과 체험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이것은 아주 쉽게만 생각을 하는데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한 믿음, 그리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말이예요. 또 효도하고 충성하고, 시간 지키고 약속 지키고, 술을 과음하지 말고, 너무 과음을 하면 정신을 잃어요. 그러면 남도 나도 좋아 지지 않으니 그건 해로운 일이라.

살생하지 말라 하는 것도 난 살생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면 살생을 그렇게 안 해요. 살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모나 자식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아유, 닭을 한 마리 사다 드려야 할 텐데...' 이럴 때 살생이 간접적으로 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주인공에다 탁! 말기세요, 돌 아니게. 그러면 그것이 살생이다 합디라 그건 살생이 아니에

26면으로 계속

###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감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원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텍 / 사무실 : 02)483-2355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 해 임 공 고

- 성 명 : 손성수
- 법 명 : 가 산
- 직 위 : 종 정
- 소 속 : 대한불교석가종
- 주 소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동리 284 (원우사)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154차 정기 월례회에서 위인(대한불교석가종 석가산 종정스님)이 본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참석회원 99% 찬성이 나와 부득이 해임으로 통과시켰음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3(2009)년 2월 19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 장 석해철 / 이사장 석지산